

# 전남 돌봄서비스 더 촘촘해진다

### 전남복지재단 6월 사회서비스원 확대개편 앞두고 서비스 고도화 박차 순천시와 노인 통합돌봄 평가연구·종합재가센터 시군 설치 운영 추진

전남복지재단이 오는 6월 전남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을 앞두고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및 요양원을 비롯한 각종 돌봄서비스를 직접제공 혹은 간접지원하면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체 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재단은 본격적인 개원을 앞두고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순천시와 함께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에 이어 자체적으로 '전남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에서는 순천시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93.3%가 일상생활이 개선됐다고

답했고, 98.4%가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답해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또한, 14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88.7점으로 전국 평균 8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효과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순천시는 선도사업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 아직 서비스 양이나 제공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사업 고도화 및 타 시·군으로의 확대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도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남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 전환 시 종합재가센터를 시군에 직접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재가센터는 노인 돌봄,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남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안 연구도 추진했다. 중

합재가센터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인 종합재가센터의 초기 안착과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현황분석 및 사례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전남 관내 재가서비스 수급현황을 살펴보고, 타 시·도 비교 분석을 기반으로 특성과 전략도 마련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의 연계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우선 설치 ▲민간시설과의 경쟁구도 지양 및 사각지대 보전적 개념 접근 ▲제공인력의 적정한 시급제도 우선 마련 ▲거점지역 시범사업 우선 추진 후 효과성 파악 등 방안이 제안됐다. 재단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원 개원 이후 도민들에게는 빈틈 없는 돌봄서비스를, 사회서비스 민간시설에는 실효성 높은 지원과 교육·컨설팅에 나설 방침이다.

신현숙 대표이사는 "사회서비스원은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도민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앞두고 다양한 연구 수행과 매뉴얼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빈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해양수산과학관, 체험수족관 새단장

### 지역과학관 역량강화 공모 선정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여수에 있는 해양수산과학관의 체험수족관(사진)을 전면 새단장한다.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은 콘텐츠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의 과학문화 서비스 품질 제고와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노후 전시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총사업비 6억원을 들여 수조과학관의 체험수족관을 새롭게 꾸밀 계획이다.

현재 체험수족관은 다양한 수산생물을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수조와 갯벌 수조 등으로 구성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교육·학습 콘텐츠로 사랑을 받았지만, 시설 전반이 노후한데다 다채로운 전시환경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관람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디지털 체험 관람시설 등 체험시설을 구축, 연말부터 관람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김영록 지사 농업인단체 간담회 "농업현장 의견 정책 적극 반영"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9일 도내 농업인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임원진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첨단 ICT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 농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농업 구축, 수축농업확대 등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전남도청에서 '전남 농업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농연 강도용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시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도내 22개 시·군 한농연 회원 150여 명이 비대면 영상으로 참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9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린 (사)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와 온-오프라인 간담회에서 강도용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규모 줄이고 방역 강화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가 정기이사회에 방역 전문가를 초청, 국제농업박람회장 위치 조정을 비롯한 관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안전 박람회 개최에 온힘을 쏟고 있다.

오는 10월 말 농업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이번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하되 온-오프라인 행사를 함께 준비해 방역관리가 용이하도록 행사장 위치를 조정했다.

스마트농업 관련 최고·최초의 기술 시연이 열릴 실물-체험전시관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하지만 관람객 밀집도가 높아 방역에 취약한 행사와 이벤트는 축소 또는 취소했다. 당초 5개 존 14개 전시관을 3개 존 8개 행사장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2021국제농업박람회는 스마트농업 기술 관련 국내외 선도기업이 참여하며, 생산·가공·유통·소비

자가 함께 하는 비즈니스 중심의 실용 박람회로 열릴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치료할 치유공간을 연출하고, 사람을 살리는 식물 전시·체험 공간을 조성해 인간과 치유문화가 공존하는 농업을 본격 조명할 계획이다.

정호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규모는 축소하지만, 미래농업에 대한 불거리와 치유공간은 확대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감염병 방역 대책을 단계별로 세우 안전관 박람회로 치르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농업'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최첨단 스마트농업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친환경농산물 30% 할인 판매

### 호남권 센터 6월까지 4개월간

### 할인행사 차액 농식품부서 보조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학교급식 공급 중단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공모사업'에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센터가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 판로 촉진행사에 나선다.

이번 판촉행사는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돼 친환경농산물 납품이 어려워짐에 따라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농산물 할인행사 차액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가는 농산물을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20~30% 저렴하게 구매하는 상생 구조다.

공모에 선정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센터는 6월

까지 4개월간 전국 농협매장,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농협몰' 등을 통해 방울토마토, 양파, 오이, 대파 등 전남에서 생산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10억원 상당을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공급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농가를 돕기 위해 전방위적 소비 촉진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2669개교 42만명에게 농산물 1428t, 160억원어치를 공급했다. 또 '친환경농업' 개정으로 학교나 군부대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판로를 확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을 올해는 전체 시·군으로 확대,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29일부터 5일간

### 교통 다중시설 등 방역 점검

전남도는 꽃놀이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29일부터 5일간 교통시설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펼친다. 점검 대상은 폭포, 여수 등 22개 시군의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 62개소와 대중교통수단 700여 대다. 다중이용시설은 터미널, 기차역, 택배 분야 물류창고, 콜센터가 해당되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택시·전세버스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반은 전남도 도로교통과 직원 27명과 시군 담당자 22명으로 구성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기세가 많이 수그러들며 확진자 숫자가 한 자릿수를 오가는 만큼 방역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수칙을 잘 지키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 영화·드라마 지원 2억원으로 확대

전남도는 지역 명소를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에서 촬영하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비 지원 규모를 2억원으로 인상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영화·드라마 제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으며 지난해 1억5000만원을 지원 규모로 확정한 바 있다. 전남에서 5일 이상 촬영하는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2~4일 촬영하는 경우 1500

만원 한도에서 전남지역 소비액 대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전남지역 소비액 인적 항목은 지역 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다. 전남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목포에서 촬영한 드라마 '도도솔솔라라솔', 여수에서 찍은 영화 '동백', 순천, 구례에서 제작한 '외계인', 장흥에서 촬영한 '샤크'에 총 1억3100만원을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대인동 쌈 빵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 중개환영. 010-3605-5000

## “금” “매”

-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20층 중 8층, 사무실 전용
-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 코너, 전망 좋음, 주차 편리
- ▶ 매매 - 1억1천만원
- ▶ 회사 사정상 급매
- 문의. 010-6837-4700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노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